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창세기 1:1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소진희 (Jin-Hee Soh)**

ABSTRACT

This is a study of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Bible to the live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live the life God requires of them. The Christian Education of Faith that takes place primarily in the home, namely prayer, reading the Bible, and family devotions, is postulated as an enabler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practicalities of these practices in guiding children in their pragmatic lives were elaborated. After discussing the need for Christian Parenting in light of the command to “first seek His Kingdom”, the concept of ‘Distinction’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is suggested as the core principle and the beginning of Christian parenting; obedience is discussed not in the Confucian sense, but as Biblical “Obedience” through Distinction; the importance of trivialities based on Biblical Distinctions is discussed; finally, principles of Biblical “Discipline” parents ought to know and practice in educating their children are discussed. The first step in practicing Christian parenting is to recognize that parents are also children of God. Parents living first as a child of God in applying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discussed within this study themselves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Christian Parenting and suggested as the verdict. If Reformative Christian Parenting professing God’s Lordship over all spheres of life is practiced within the home, the primary institution of education, it will greatly aid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advancing the vocation of humans to revolutionize the world.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parenting, distinction, obedience, trifles, discipline

* 2023년 11월 8일 접수, 12월 3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3회 기독교학문학회(2016년 11월 5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학부대학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jhso@kosin.ac.kr

1. 서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대한 연구¹로, 성경 말씀과 신앙적 행동(기도하기, 말씀 읽기, 예배드리기 등)이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은 이원론적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요구한다. 우리의 교리가 참되다는 것, 성경이 전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삶을 실제로 살 때에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오춘희, 2018: 13). 더욱이 성경적 지식관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 속에 실천해야 할 의무를 제공하는데, 성경적 지식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능동적인 것(김성수, 2015: 29)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식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적 지식관에 근거해 보더라도 자녀교육은 성경 말씀과 신앙적 행동이 자녀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관심은 지대하다. 오히려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이 떨어져 지내거나 주일마저 자녀를 학원에 보낼 만큼 교육에 대단한 열의를 가진 부모도 있다. 자녀 세대를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열은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일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세상적인 성공, 혹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함승수는 그의 연구 ‘한국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제언’에서 “입시 위주 교육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상향성의 욕구를 성경은 경계하라 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 왜곡된 욕심이 교육에 투영되지 않도록 각고하고 참회해야 한다(함승수, 2018: 329)”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게 하는 관점에는 한국인들이 견지한 유교적 사상이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박상진, 2008 ; 양승준, 2018 ; 이찬수, 2000 ; 주인옥, 2007). 박상진은 한국의 입시 문제는 유교문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이러한 현상을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박상진, 2008: 99). 주인옥 또한 한국사회의 유교문화를 기독교의 중요한 요인, 특히 총체적 기독교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주인옥, 2007: 325). 민족성 혹은 세계관은 공동체적이기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유하게 되는 것으로,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부지불식간

1)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자녀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독교인 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요구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교육을 가정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부모(혹은 교회교사까지도, 기독교교육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부모 교사까지도)를 염두에 두어 이론의 일상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에 스며든 유교문화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교는 유교 최초 경전인 효경(孝經)에서 유래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며 수직적 사회질서를 강조(안점식, 2008: 172)하기 때문에 유교문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은 상태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인 관점이 세상의 머리가 되라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 성공과 명성을 얻은 상태로 적용하게 된다.

기독교적 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제시²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유대인의 교육이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유 중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둔 것일 수 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비록 비기독교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면 타협하거나 그것에 기독교적인 것을 덧붙여서 기독교적 가치인 양 활용하는 것이다.

자녀교육의 책임을 소명으로 받은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녀교육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다. 부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자녀교육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녀 양육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대한민국 시민의 대립이 아닌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성경적 자녀교육은 신앙적 행동(예배, 성경 읽기, 기도, 헌금 등)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 셋째, 성경적 자녀교육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그곳이 어디이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전제는 창세기 1:1이며,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부모의 역할이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교육이라는 교육적 소명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기준 ‘기독교교육(결과 내 검색어 +유대인)’ 키워드 검색 결과 국내 학술논문 75건, 학위논문 175건이 검색된다(2023년 11월 기준). 최근에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황병준과 김지숙은 가정을 경건한 신앙공동체로 세우는 신앙훈련 및 영성 훈련의 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브루타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를 제시하고 있다(황병준 김지숙, 2018).

3)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부모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이련저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보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부모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자녀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 지닌 기독교인 부모들이 성경에 기초한 자녀교육의 원리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에 기초해 논의한 후, 자녀교육의 핵심 원리이자 시작으로서의 ‘구분’을 창세기 1:1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유교적인 순종이 아닌 구분에 따른 성경적인 ‘순종’, 그리고 성경적인 구분을 기초로 한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부모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성경적 ‘징계’ 원리를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둘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이자 독특성은 자녀교육의 핵심이자 시작을 창세기 1:1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 상정한 것에 있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가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핵심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전제한 것은 이전 연구들보다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가 원리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선형적 경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들의 주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이다. 그러나 선행해야 할 질문은 ‘왜 해야 하는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보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에 기초한 연구이며 방법론적 연구가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리에 근거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토대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이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시민 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원리이다. 시민 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라’, 또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나라 또는 국가라 할 수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다.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소유권이 결정된다.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 통치권의 개념(조호형, 2023: 385)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원리에 입각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이 만든 국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조리가 난무하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부모로서 자녀교육의 소명을 수행할 때도 예외일 수 없다. 자녀교육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이론과 원리에 입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자녀교육의 출발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현대사회 혹은 한국적 상황과의 대립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 경쟁의 상대, 성공의 개념, 공부하는 목적, 나아가 인간 삶의 목적까지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의 괴리는 성경적 원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적 원리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란격석(以卵擊石)’에 비유하며 합리화할 때도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바위에 속해 있으며 세상이 계란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진리, 창조주의 진리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쉽게 깨어지는 달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진리가 바위인 기독교의 진리를 만났을 때 깨어져야 하는 달걀이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만나 삶의 목적이 바뀌고 행복과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의 간극은 다른 통치권에 의한, 다른 방향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통치권에 의한 다른 방향’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이며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외현적으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녀교육이 현실 삶과 괴리가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부합하

4) 우리나라가 일본 국권 침탈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시민이 살고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표현한다.

는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말이다.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 헌신이 요구되지만 짧은 시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도로무공(徒勞無功)처럼 보이거나 손해를 본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유익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III. 자녀교육의 원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자는 기초적인 원리라 가정하고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분, 순종, 사소한 것, 그리고 징계이다.

창세기 1:1을 기초로 한 구분은 자녀교육의 핵심이자 시작이라 전제한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은 앞서 논의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먼저 그의 나라, 즉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12:1-2), 즉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주권만을 구하라고 요구하신다. 따라서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할 때 성경적인 순종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하게 여겨 실천할 수 있다 하겠다. 구분과 순종, 그리고 사소한 것의 실천은 자녀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면 징계는 부모가 실천해야 하는 영역이다. 징계는 자녀들을 기독교적 삶으로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부모는 성경적 징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징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이므로 부모도 구분에 기초할 때 자신이 기준이 되는 징계가 아닌 성경적 징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 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다.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의 연속선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며 복음이라는 독특성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 세상과 사람의 주인(Wenham, 박영호 역, 2001: 101)이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무엇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자신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계획도 자신의 생각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자녀 또한 주시는 대로 받은 것이라 부모의 것이 아니다. 주어진 자신의 생명도 자녀도 본질상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1:1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이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 법과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그의 것이며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피조물의 뜻이 아닌) 그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거나 어떤 누구의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창세기는 이 세상과 인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재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1:1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구분’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것은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구분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다. 창조된 자신과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신국원, 2006: 66)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의식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단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한다. 인간의 위치와 존재 이유,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존재 방식 등 모든 것은 인간에게

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인적으로 인정하게 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인간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기초라고 한다. 면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시작도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분이 없는 교육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부터 실패를 초래하고 자신의 존재 방식의 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분을 교육에 적용하여 ‘신분 구분’과 ‘행동 구분’으로 나누고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문화형성이기에 문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문화 구분’도 포함한다. 신분 구분과 행동 구분은 전혀 다른 구분이라기보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신분 구분에 따른 행동 구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할 수 있다.

(1) 신분 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누군가의 자녀인 것, 누군가의 부모인 것, 누군가의 형제자매인 것, 학생인 것 등은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가? 학생인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고백은 자신의 신분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하는가? 본 연구자는 신분을 소명(부르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소진희, 2019: 44).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이것을 증거 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로새서 1:16).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기 때문에(Kuyper, 박태현 역, 2020: 71) 자신의 신분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나 같은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분의 자녀를 양육할 어머니로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 기인한다고 할 때, 신분 자체가 소명(부르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상민 교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에서 인권보고서를 인용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생인 것은 자신의 노력 이전에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한국에 태어난 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 2013).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분을 소명으로 해석하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소명을 성취하는 삶’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득적 혹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소명)에 요구되는 삶을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신분 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신분 구분의 중요성은 신분에 맞는 행동이 무엇

인지 구분하여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 구분의 시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창조주인지 인간인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런 구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부모인지 자녀인지)부터 학교(교사인지 학생인지), 교회(목회자인지 성도인지), 가족관계(형인지 동생인지), 성별(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등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분 구분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모든 신분에 적용된다.

신분 구분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 이상이라는 것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한가지 신분만을 생각해서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 그대로 적용하면 도행역시(倒行逆施: 도리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지만 자녀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이다. 교수의 신분과 학부모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들의 학교에서 교수의 신분만을 염두에 둔다면 갈등이 초래된다. 근래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살펴보면 신분을 구분하지 않아서 입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여러 신분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은 앞서 언급한 여타 다른 신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은 신분 구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갈라디아서 2:20)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된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영속적인 사건이다.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는 중요한 출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 구분을 위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혹은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세례 교육’을 들고 싶다. 세례 교육은 통상 세례 혹은 입교를 앞둔 신자를 대상으로 교회가 일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의 의무만이 아닌 부모의 의무이며 가정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⁵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이것은 자기 주장자가 아닌 자기 부인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출발이 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세례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2) 행동 구분

행동 구분은 신분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 구분도 포함된다. 사람의 신분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바뀐다. 가정에서는 자녀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형제 자매간에 요구되는 행동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동은 같을 수 없다.

자녀들의 행동을 제재할 때 종종 제기되는 문제는 누구(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내 친구 등등)는 할 수 있는데 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는가이다. 어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허용되는 것은 행동의 내용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행동이라도 신분과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 구분은 신분 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동의 또는 실천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언제(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식사 시간인지 TV 시청 시간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주장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어디서(가도 되는 장소인지 가면 안 되는 곳인지, 공공장소인지 사적인 장소인지), 누구(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공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인지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사람인지, 교제를 해야 할 사람인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등)와 무엇(즐거워 되는 문화인지 피해야 할 문화인지, 바른 문화인지 퇴폐적인 문화인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기쁨인지 쾌락인지, 가져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함께 쓰는 물건인지 개인의 것인지, 돈을 써야 할 때인지 쓰면 안 되는 때인지, 청소년문화인지 성인문화인지 등)을 할 때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에게는 허락된 장소라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장소가 있다. 성인에게는 허락된 물건이라도 자녀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 사적인 장소에서는 허락된 행동이라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부모님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다른 가정에서는 허용되지만, 자신의 가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행동 구분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구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이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용납되거나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법과 윤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행동 구

분의 핵심은 법과 윤리적 차원에서만의 행동 구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다. 법과 윤리적 차원에서 용납되는 행동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인 차원의 당연한 행동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법과 윤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신분과 신분에 따른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은 신분 구분에 의한 행동 구분이 되지 않는대서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도 동일하다 하겠다. 결혼한 남녀가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이 아닌 청년이라는 신분과 행동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 즉 자녀이며 학생이며 청소년(혹은 어린이)이라는 신분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한대서 발생하고, 부모 또한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위한 헌신과 사랑, 배려와 희생 등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일방적인 헌신이나 자녀의 일방적인(유교적인) 순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자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에 요구되는 행동을 사랑 안에서 실천할 때 의도하지 않아도 좀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신분 구분에 의한 행동 실천이 가능하다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 구분

사람은 본질상 문화를 만들고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사상이나 이념, 전통, 관습, 학문 등 정신문화에서부터 의식주로 대변되는 물질문화, 그리고 책, 영화, 연극, 드라마, 광고, 여가 등 대중문화는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문화형성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문화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현대사회의 문화는 하나님을 향하는 문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어떤 문화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하여 정신적 심리적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아가 인간존재의 목적까지도 왜곡시킨다.

문화를 구분하는 힘은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존재의 목적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세속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쉽게 노출되는 대중문화는 자녀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어 행동양식에 적극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은 중요하다. 대중문화 구분의 기준은 순전한 기쁨인지 잘못된 쾌락인지, 쉽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인지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 등인데,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비록 개인적으로는(혹은 사회적으로) 그 문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⁶ 본 연구에서는 문화 중 정신문화 구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상, 학문, 종교, 예술, 언어 등의 정신문화는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시대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예술 등은 그 시대가 존재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지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많은 사람들은 학문연구에 의해 이론화된 지식, 과학적 탐구에 의한 이론,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주장되는 개념이라면 거의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⁷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까지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런 지식이나 이론, 신조어 등을 더 빨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온당한 삶의 태도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신문화를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세속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정신문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지식은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 이론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정신문화를 구분하기 위한 출발이 되는 질문일 수 있다. 모든 공부와 이론과 학문과 사상에 적용되어야 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질문과 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기독교학교 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정신문화 분석에 유연해지게 하는 용이한 방법은 정신문화 중 다소 단순한 신조어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신조어에 내포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 혹은 어긋나는지, 그 신조어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파괴하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기준 ‘기독교교육(결과 내 재검색 +대중문화)’ 키워드 검색 결과 국내학술논문 110건, 학위논문 342건이 검색된다(2023. 10월 기준).

7) 2022년 8월경 프랑스의 유명 물리학자 에티엔 클렝(Etienne Klein)의 소시지 사진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이라며 아주 자세하게 찍어 올린 사진에 네티즌들은 열광했지만, 사실은 얼마 후 클렝은 그 사진이 스페인 소시지 단면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권위 있는 물리학자의 장난을 무책임한 것으로 여겼지만 클렝은 ‘권위 있는 사람의 주장이나 그럴직한 사진이라고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기독교적 발문’이라 명명하는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고 그 관점에 내재된 세속주의를 인식하게 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서울이라는 말은 누가 왜 말한 것인가? 누구 혹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말인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금수저 은수저 ... 어느 집에 태어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음에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할까?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던 것에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는 결정할 수 없었지만 어떤 자녀로 행동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등의 질문이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나 신조어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좀 더 복잡한 학문이나 이론, 사상 등을 구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학습의 전이’라고 한다. 학습의 전이란, 어떤 학습 경험에서 얻은 지식, 능력 등이 다른 상황이나 과제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소한 신조어를 해석하는 것에서 복잡한 이론까지 해석할 수 있는 학습의 전이를 기대할 수 있다.

2. 순종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4)

(1) 듣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들으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며 지식 축적을 위해 들으라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순종하라!’(Koehler et al., 1994-2000: 1570-1574)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순종은 이성적 판단으로 동의가 되면 행동하고 동의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후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유일하신 전능자의 말씀에 이성적 판단이 전제될 수는 없다. 순종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단이라기보다 이성적 판단보다 앞서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성적 판단에 앞서 어떠한 가치판단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개혁주의자들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던 대소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도 순종의 방

법을 취한다. 주어진 질문에 정해져 있는 답이 있고 주어진 답을 암송하여 대답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을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는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의 역할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진리를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확장시킬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기독교적 교육의 출발은 ‘순종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이 일반교육과 구별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일반교육의 목적은 합리적인 인간 형성에 있다. 합리적인 인간은 이성에 부합하거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실 판단의 근거가 과학과 이성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성적 판단에 앞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요구한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에 기초할 때 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서의 받아들임이 전제되지 않은 이성의 판단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조차도 신실(Smith, 박세혁 역, 2018: 48)해야 한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은 ‘듣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로 교육해야 한다. 마음으로서의 순종 영역이 있고 이성적 판단으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살고 현대교육에 익숙해진 자녀들이 이성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 이성적 판단을 위한 질문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상식이나 정리된 이론을 저울질하는 것, 더 나아가 일반적 이론이 기준이 되어 성경 말씀의 내용을 판단하는 등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자신의 삶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데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감사의 적극적 반응으로서의 순종

기독교적인 순종교육을 위해서는 ‘순종’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삶의 원리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순종’이 연장자(혹은 직책 등)인 타자의 요구에 의한 거절할 수 없는 소극적인 행동, 때로는 원치 않으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순종은 감사함에 대한 적극적 반응으로써의 행동이다. 월터스토포르프(Wolterstorff, N. P.)는 감사를 위한 교육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복 주시어’가 전제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명령에 대한 반응은 복 주심에 대한 감사(Wolterstorff, 2002: 267)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순종하는 이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이 거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근원이 될 때 참된 의미의 순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유교적 관점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순종교육은 부모의 의견과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판단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순종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는 자녀교육을 소명으로 받았기에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권면의 차원이어야 한다. 진리 안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 있다면 구체적인 적용이 부모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녀의 결정에 지지와 응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순종’을 ‘자신의 신분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을 감사함으로 행하려는 의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 행동이 아닌 감사에 의한 적극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 청소년으로서 자신이 즐기는 문화를 선택하는 것 등을 구분하며 행동하는 것은 자녀로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인 것이다.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분의 자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여 자녀를 위해 밥을 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 시간적 사용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이다. 결국 자녀의 일차적인 순종의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적인 순종’은 ‘구분’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 하겠다. 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상실된다.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구분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한다. 부모님은 자신을 양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구분이 부모님의 권면을 귀담아듣게 한다. 앞서 신분 구분에서 언급했듯이, 1%라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하셔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감사함으로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3. 사소한 것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창세기 3:6)

창세기 3장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불순종의 결과로 최초의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 완벽했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의 양 때문이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⁸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보면 양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는 하나님이지기에 하나님 말씀에의 불순종이 단절의 원인이다. 드러난 현상 또는 그것이 지니는 객관적인 값어치가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현상이나 상황의 가치를 결정한다.

사소한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10)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누가복음 19:17)

여기에 언급된 ‘작은 것’도 외현적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충성의 대상은 그 일이 아닌 그것을 요구한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1) 사소한 의식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일평생을 바벨론을 위해 핵심적인 일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에게서도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8)

뜻을 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일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의식주’는 모든 문화의 기본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이 의식주를 형성하고 또한 의식주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민족은 동일한 의식주를 가지고 있고 그 의식주가 그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준다.⁹ 따라서 의식주는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평생 바벨론을 위해 핵심적인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지 않

8) BHS 창 3:6. NIV는 some으로 복수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으나 오역이며 히브리 원문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9) 이슬람은 그들만의 의식주를 철저히 지킨다. 히잡, 할랄식품, 그리고 도시나 건물을 건축할 때 알라의 가호가 느껴지도록 건축한다. 본 연구자는 철저한 이슬람식 의식주가 이슬람 결집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

을 수 있었던 것은 사소해 보이거나 가장 기본적인 문화부터 거부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위해 일했으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민족은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의식주를 공유하는 자라는 전제를 통해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의식주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의식주 내용 자체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방해하거나 삶 속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기꺼이 멀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세대의 의식주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의 흡수를 가속시키게 되는데 앞서 논의한 것과 동일하게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는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질문화의 한 영역인 의식주도 예외일 수 없다.

인간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이며 그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대의 의식주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 세대가 요구하는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의식주를 선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사소한 삶의 태도

자녀의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나쁜 습관, 사소한 잘못 등 사소한 삶의 태도가 당장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소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사소한 삶의 태도 빈도나 강도가 그것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물질주의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식탁에 올려둔 천원이 없어졌을 때와 십만 원이 없어졌을 때, 자녀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부모는 돈의 값어치를 떠나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 것에 대한 교육은 돈의 액수와 관련이 없다. 사소한 규칙을 어겼을 때와 중요한 규칙을 어겼을 때도 그것을 다루는 내용과 방법은 동일해야 한다.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의 행동이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그 나이에서 행할 수 있는 큰 잘못 일 수 있다.

자녀교육에서 중요하나 자주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소한 삶의 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인데, 사소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 사소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약속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소한 일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적은 돈도

관리하지 못하면 큰돈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는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성경적 인간관이 거부하는 인간관은 본질상 선하다는 인간관, 본질상 결정론적이거나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의 인간관, 인간의 자율성을 조장하는 인간관(김성수, 2015: 21-22) 등이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자녀의 사소한 삶의 태도에 대해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며 크면서 알게 된다고 적극적 교육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지나친 비관론은 사소한 삶의 태도가 교육으로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나 완전히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 받은 자이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은 세상이나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크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존재도 아니고 사소한 삶의 태도가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타락의 모습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또한 타락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사소한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4. 징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창세기 3:23)

징계는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교육의 목적을, 일반적인 용어로는, ‘전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활동’으로, 기독교적 용어로는 ‘소명을 성취하는 삶’으로 정의한다.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소명을 성취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는 교육목적 달성에 중요하다. 오춘희는 그의 연구, ‘기독교교육의 잃어버린 보화: discipline’에서 discipline이 징계, 훈계, 교훈, 벌, 징벌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하며, 교회에서의 discipline이 상실되고 기독교대안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discipline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discipline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대한 것이 되었다고 강조한다(오춘희, 2014, 21-22).

기독교적 자녀교육에서 부모가 시행해야 할 자녀에 대한 징계 또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징계는 처벌의 목적이거나 비난의 도구가 아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하신 말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창세기 3:16)의 ‘고통(아차브)’은 ‘명심하게 하다, 각성시키다’의 뜻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명심하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 징계로 말미암아 그러

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한 처벌이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자녀교육에 있어 징계의 원리를 소극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에덴동산’으로,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언약에의 소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돌아갈 수 없는 에덴동산’과 ‘새로운 언약에의 소망’의 원리를 중심으로 용서와 책임의 분리, 성실함과 함께함, 그리고 뉘우침과 결단이 포함된 징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변화된 상태에 대한 소망이 징계의 핵심임을 밝히고자 한다.

(1)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징계의 원리, 즉 ‘돌아갈 수 없는 에덴동산’의 원리는 용서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용서받았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완벽했던 에덴동산에서 피흘림의 제사를 감행하시면서까지 말이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불순종을 없었던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벌과 함께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이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에덴동산에서 불순종 이전에 누리던 모든 완벽함과 영원히 사는 것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용서받았다고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땀을 흘려야 했으며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받았기에 이전에 누리던 것,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

인간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볼 때, 부모는 자녀의 어떠한 잘못이나 불순종도 용서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자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녀의 불순종 또는 잘못에 책임질 기회를 주지 않는 용서는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오히려 방종으로 이끌 수 있다. 잘못에 대한 불편함과 힘들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바른 징계를 위해서는 용서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야 하며 징계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예컨대, 일주일 학교 통학 교통비로 받은 돈을 여타 옳지 않은 것에 사용했을 경우, 그런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일주일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교통비를 받을 때까지 걸어서 등교하는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2) 성실함과 함께함의 징계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할 때조차 성실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징계하시는 것

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징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준은 확실하며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사랑’에 기초한다. 창조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창조주의 말씀이 삶에 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의 순종을 성실하게 강조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실하게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사랑에 근거한 성실함이 요구된다. ‘순종’에서와 같이 징계의 기준도 부모님 말씀에의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어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징계는 피해야 한다. 징계의 내용도 그러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이익을 주고 마는 징계는 징계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

징계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방법 또한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성실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는 자이고, 징계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사랑은 역기능적이고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징계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요구 등의 이유로 성실한 징계를 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자는 성실한 징계에 실패하는 이유를 부모의 이기심 때문이라 표현한다. 이기적인 자녀 사랑, 자녀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반응, 자녀의 자존감의 문제, 자신의 분주함, 자신의 필요 충족 등 때문에 성실한 징계에 실패하거나 징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전적인 희생이다.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죽음과 고통 속의 인간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희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다. 징계의 상황에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요한복음 3:16; 로마서 5:8)을 보여주셨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희생과 함께함이 필요하다. 자기희생이 없는 징계는 폭력일 수 있고 사랑의 표현일 수 없다. 부모도 징계로 인한 자녀의 불편함과 힘듦에 함께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교통비를 다른 데 사용하여 학교까지 걸어가야 할 때 어린 자녀라면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자녀에게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면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징계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길로의 돌이킴이기 때문에 징계의 상황일 때에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 속에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3)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는 징계

징계에서 또 다른 원리는 징계받는 자녀에게 그러한 행동이 심각한 불순종이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뉘우침과 결단’을 끌어내듯이 자녀교육에 있어 징계 또한 ‘뉘우침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 근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반복되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징계, 즉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지 않는 징계 때문일지도 모른다.

교육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교육의 연장인 징계 또한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뉘우침과 결단을 하게 하는 동기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획일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된 징계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알아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연구된 인간 성향이 아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심리가 아닌 자신의 자녀를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희영 등은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일반교육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제공된 자녀 양육의 방법과 기술들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유익한 통찰과 유용한 원리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부모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일반교육학이나 심리학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은 이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정희영·정희정, 2008: 267).

이러한 연구들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자료이지만 바로 내 자녀를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자녀는 무엇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가장 기뻐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일 때 반성하는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가, 언제 희로애락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일 때 힘들어하는가 등 자녀를 아는 만큼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적절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 사소한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으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소한 것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돌아갈 수 없는 에텐동산’의 징계, ‘새로운 언약에의 소망’의 징계가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IV. 결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학습자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가는 학습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르치는 부모이다. 자녀를 교육할 때 기독교적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기독교적 원리에 헌신 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적 원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이전에 기독교적 원리가 삶에 내재 되어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 가능하다 하겠다. 흔히 ‘모델링의 원리’라고 하지만,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상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모방하는 것이 진정한 모델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된 자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실천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충성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적절한 징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은 실천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토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 토대 출발로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성실함과 함께함의 징계, 뉘우침과 결단이 있는 징계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주어진 교육적 소명은 자녀가 이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의 개론적인 원리에 관한 연구에 목적을 둔바, 제시한 각각의 원리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공부하는 목적, 진로 교육, 인성교육 등에 제시된 원리의 적용은 차후 연구로 남겨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16). 일상의 삶: 행복과 불행. **철학논집**, 46, 41-68.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2009). **기독교교육의 기초**. Richard J. E.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그리스심.
- 김기숙 (2020). 21세기 시대정신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64, 1-36.
- 김난예·김요셉·옹성욱 (20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자녀교육**. 서울: 쿤란출판사.
- 김달효 역 (2013). 단호한 훈육. Canter, L. (1992). *Lee Canter's Assertive Dicipline: Positive Behavior Management for Today's Classroom*. 서울: 학지사.
- 김병재 (2022).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1), 89-119.
- 김성수 역 (2003). **가르침은 예술이다**. Van Dyk, J. (2000). *The craft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IVP.
- 김성수 (2015). 기독교교육의 정체성. **기독교교육학 개론**(강용원 책임편집), 15-45. 서울: 생명의 양식.
- 김세윤 (2015). **바른 신앙의 질문들**. 서울: 두란노.
- 김진홍 (2011).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하라**. 서울: 팜트리.
- 김헌수 (2014). **영원한 언약-유아세례 예식문 해설**. 서울: 성약.
- 김홍만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박문재 역 (2022).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강해**. Alexander, W. (2004). *An Exposition on the Shorter Catechism*. 서울: CH북스.
- 박상진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18, 99-129.
- 박상호 역 (2012).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 Van Dyk, J. (2011). *Letters to Lisa*.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호 역 (2001). **창세기 1-15**. Wenham G. (1987). *Word Biblical Commantary*, Vol. 1: Genesis 1-15. 서울: 솔로몬출판사.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군포: 다함.
- 소진희 (2018). **우리 이야기와 노래**. 부산: ReEd.
- 소진희 (2019). **HERE and NOW-학문 소명 진로**. 부산: ReEd.
- 신국원 (2006).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신승범 (2016). 부모, 신앙교육의 주체인가?. **기독교교육논총**, 48, 293-319.
- 안점식 (2008). **세계관 종교 문화**. 서울: 조이선교회.

- 양승준 (2018). 임영택의 기독교교육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57, 63-91.
- 오광만 역 (2004). **기독교지성의 책임**. Plantinga, C. (2002). *Engaging God's world*. 서울: 규장.
- 오춘희 (2014). 기독교교육의 잃어버린 보화: discipline. **기독교교육정보**, 41, 1-33.
- 오춘희 (2018). 일상의 삶으로 접근하는 기독교교육: 세상의 미로 속에서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58, 1-25.
- 유선희 (2023). 기독교 가정의 긍정적 언어 환경을 위한 연구: '토마스 고든'과 '마조리 코스텔닉'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7, 89-119.
- 유은희 (2023).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I.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신앙과 학문**, 28(3), 91-121.
- 유재봉 (2019). 쉽고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24(3), 139-161.
- 유해무 (2019). **우리 신조 수업(유교수의)**. 서울: 담백.
- 윤석인 역 (2010).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Horton, M. S. (1995).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A Christian View of Culture and Your Role in it*. 서울: 부흥과개혁사.
- 이경섭 역 (2017). **개혁주의 교육학**. Berkhof, L. & Van Til, C. (1989).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Addresses to Christian Teachers*.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 이지선 역 (2021).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 Ferrando, F. (2020). *Philosophical Posthumanism(Theory in the New Humanities)*. 서울: 아카넷.
- 이지혜 역 (2010).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Opitz, D. & Melleby, D. (2007). *Outrageous Idea of Academic Faithfulness, The: A Guide for Students*. 서울: IVP.
- 이찬수 (2000). 한국의 전통문화 입장에서 본 기독교 가정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0, 87-103.
- 이해명 역 (2009). **교육적 상상력**. Eisner, E. W. (2001).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경기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진중권 (2019). **현대미학 강의**. 파주: 아트북스.
- 정옥분·정순화 (2019).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희영·정희정 (2008).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신앙과 학문**, 13(3), 267-306.
-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10, 203-239.
- 조호형 (2023).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대체 용어에 대한 고찰: '엔 그리스토'에 대한 재고.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71, 384-414.
- 주인옥 (2007). 기독교 교육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 **기독교교육논총**, 15, 325-345.
- 최은택 (2020).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 비블리오드라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3, 91-120.

- 함승수 (2018). 한국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제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57, 329-358.
- 홍종락 역 (2017). **사랑과 정의**. Wolterstorff, N. P. (2011). *Justice in Love*. 서울: IVP.
- 황대우 편역 (2013).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 황병준·김지숙 (2018). 하브루타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4, 209-242.
- Abbott, J. S. C. (2005). *The Child at Home: Living to Please God and Your Parents*. FL: Solid Ground Christian Books.
- Clarkson, S. (2004). *The Ministry of Motherhood*. CO: Waterbrook Press.
- Elliger, K. (2007). *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 Koehler, L., Baumgartner, W., Richardson, M. E. J., Stamm, J. J., Hartmann, B., Jongeling-Vos, G. J. & Regt, L. J. (1994-2000).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 Palmer, P. J. (2007). *The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CA: Jossey-Bass.
- Plantinga, A. (2015). *Knowledge and Christian Belief*. MI: Eerdmans Publishing Co..
- Plantinga, C. (2023). *Under the Wings of God*. MI: Brazos Press.
- Smith, D. I. (2018). *On Christian Teaching*.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Smith, J. K. A. (2006).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MI: Baker Academic.
- Smith, J.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MI: Baker Academic.
- Smith, J. K. A. (2010). *Letters to a Young Calvinist: An Invita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MI: Brazos Press.
- Smith, J. K. A. (2013). *Imagining the Kingdom*. MI: Baker Academic.
- Wayne, I. (2017). *Education: Does God Have an Opinion?* AR: Master Books.
- Wayne, I. (2018). *Answers for Homeschooling*. AR: Master Books.
- Westerhoff, J. H. (2012).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3rd ed.). NY: Morehouse Publishing.
- Wilson, D. (2022). *The Case for Classical Christian Education*. ID: Canon Press.
- Wolterstorff, N. P. (1980).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MI: Eerdmans Publishing Co..
- Wolterstorff, N. P. (2002). *Educating for life*. MI: Baker Academy.

Wolterstorff, N. P. (2004). *Educating for shalom*. MI: Eerdmans Publishing Co..

Wolterstorff, N. P. (2019). *In This World of Wonders: Memoir of a Life in Learning*. MI: Eerdmans Publishing Co.

“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 세바시 329회 (2013). Retrieved from <https://youtu.be/LH71QPRuQDQ?feature=shared>. (2023.10.1.)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창세기 1:1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소진희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관한 연구로, 성경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신앙교육, 즉 기도하기, 말씀 읽기, 가정예배는 기독교적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상정하고 그것이 자녀의 현실적 삶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에 기초해 논의한 후, 자녀교육의 핵심 원리이자 시작으로 창세기 1:1절을 중심으로 ‘구분’을 제시하고 유교적인 순종이 아닌 구분에 따른 성경적인 ‘순종’, 그리고 성경적인 구분을 기초로 한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데 부모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성경적 ‘징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모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다. 부모가 먼저 본 연구에서 논의된 자녀교육의 원리를 스스로 삶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기독교적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의 핵심적인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는 개혁주의적 자녀교육이 실천된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곳에서든 세상을 변혁해야 하는 인간의 소명을 성취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기독교교육, 자녀교육, 구분, 순종, 사소한 것, 징계